

# “설욕 다짐했는데...금메달 정말 힘드네요”

## 패럴림픽 탁구 2회 연속 은메달 광주시청 서수연



패럴림픽에서 2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한 서수연(35·광주시청)이 짙은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서수연은 지난 28일 오후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탁구 여자 단식(스포츠등급 TT1-2) 결승에서 류징(33·중국)에게 세트스코어 1-3(7-11 8-11 11-4 8-11)으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2016 리우 패럴림픽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선수가 패럴림픽 탁구에서 2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한 건 서수연이 처음이다.

세계 2위라는 훌륭한 성적이지만, 서수연은 경기를 마친 뒤 ‘아쉽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도 결승에서 류징에게 1-3으로 패했기 때문이다.

당시 눈물을 쏟았던 그는 5년 만의 설욕을 다짐하고 이번 대회에 임했으나, 끝내 강력한 중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또 한 번 류징에게 금메달을 내준 뒤 믹스트존에 들어선 서수연은 취재를 보자마자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결승에서 중국 류징에게 또 막혀 최선 다했지만 결과 너무 아쉬워 머릿속에서 경기 계속 맴돌아요 단체전서 다시 금메달 도전할 것

아쉽네요”라고 말했다.

앞서 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뒤 “결승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했었던 그녀.

서수연은 “내가 구사하고 싶은 기술들이 더 있었는데, 물리는 상황이 오다 보니 해 보지 못해 아쉽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후회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다. 행운이 좀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준결승부터 그러지 않았다. ‘극복해보자, 해보자’ 생각했는데 여의치가 않았다. 매우 아쉽다”고 했다.

“지금도 머릿속에서 경기가 맴돈다. 리우 때보다도 경기가 빨리 끝난 느낌이다”라고 곱씹기도 했다.

3년 후 열리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다시 금메달에 도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에 서수연은 “나이가 적지 않아 격정

되기는 한다”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도쿄 때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나면 다음 패럴림픽을 다시 준비할지, 운동만 할지를 편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 아쉽다. 내가 목표하는 건 금메달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정말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은연중에 드러내 보였다.

서수연은 “국위선양의 의미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목표라 금메달을 따고 싶었던 건데, 은메달도 당연히 크다. 경기에 이번이 많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모델을 꿈꾸던 10대 소녀 서수연은 자세 교정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주사 치료를 받은 후 척수에 문제가 생겨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러나 재활을 위해 탁구를 접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리우 패럴림픽에서 여자 탁구 단식 최초의 은메달을 따내며 장애인 스포츠 대표 스타로 떠올랐다.

서수연은 31일 후배 이미규, 윤지유와 함께 여자 단체전(스포츠등급 1-3)에서 또 한 번 금메달에 도전한다.

서수연은 “단체전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남은 기간 단체전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9일 열린 2020 패럴림픽 탁구 여자 단식(스포츠등급 1-2) 시상식에서 서수연이 은메달을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녁을 향해 지난 28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양궁 혼성단체전에 출전한 김옥금(광주시청·오른쪽)-구동섭이 러시아패럴림픽위원회 알렉세이 레오노프, 엘레나 크루토바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고 있다. 김옥금-구동섭은 이 경기를 132대 127로 마치며 4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확 달라진 현대건설, 컵대회 우승

### 지난해 3관왕 GS칼텍스 꺾어

현대건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2021년 한국배구연맹(KOVO) 컵대회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트레블’ (3관왕)을 달성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다빈치 챔피언’ GS칼텍스는 준우승을 거뒀다.

현대건설은 29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2021 의정부·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GS칼텍스를 세트 스코어 3-0(25-23 25-23 28-26)으로 완파했다.

현대건설은 2019년 순천 대회 우승 후 2년 만에 컵대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현대건설은 구단 4번째 컵대회 정상에 오르며 GS칼텍스와 함께 최다 우승 타이(4회)를 이뤘다.

강성현 현대건설 감독은 사령탑 부임 후 처음 출

전한 대회에서 우승하는 기쁨을 토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제천 대회를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노렸으나 결승전에서 현대건설에 완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해 컵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V리그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까지 석권하는 트레블을 달성한 GS칼텍스는 올해는 트레블의 첫 단추인 컵대회 우승을 놓쳤다.

레프트로 변신한 현대건설 정지윤이 17득점을 폭발하며 우승을 이끌고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정지윤은 투표에서 27표를 획득, 황민경(2표), 이다현·양효진(이상 1표)을 제치고 MVP 영예를 안았다. 양효진과 황민경은 나란히 11득점을 기록했고, 센터 이다현도 7득점으로 거들었다. 이다현은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 ‘칩인 이글’ 이다연 메이저 제패

### 한화클래식 우승...통산 6승

이다연(24·사진)이 ‘칩샷 이글’을 앞세워 2년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정상에 복귀했다.

이다연은 29일 강원도 춘천시 제이드 팰리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한화클래식(총상금 14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최종 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잡아내는 깔끔한 경기로 최혜진(22)의 추격을 7타차로 따돌린 이다연은 2019년 12월 효성 챔피언십 제패 이후 1년9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통산 6승째.

이다연은 우승 상금 2억5200만원을 받아 상금 랭킹 5위(4억7513만원)로 올라섰다.

2019년 한국여자오픈에 이어 메이저대회 우승도 2승으로 늘었다.

이다연은 2017년 오지현(25)이 남긴 대회 최소타 우승 기록(275타)을 훌쩍 뛰어넘는 새 기록까지 세웠다.

이날도 보기를 하나도 적어내지 않은 이다연은



2라운드 10번째 홀부터 45홀 동안 보기 없이 이글 2개와 버디 12개를 뽑아내는 견고한 플레이를 펼쳤다.

최혜진은 이날 버디 4개를 잡아내고 보기 2개를 곁들여 2언더파 70타를 쳤다.

대회를 주최한 한화 후원을 받는 김지현은 1언더파 71타를 때리며 3위(10언더파 278타)에 올라 시즌 최고 성적을 거뒀다.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임희정(21)은 공동 8위(7언더파 281타)를 차지했다. 1오버파 73타를 적어낸 박민지(23)는 공동 39위(1오버파 289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 쌍둥이 자매 테니스 복식 결승서 맞대결

### 시카고 오픈서 치열한 승부 벌여

쌍둥이 자매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복식 결승에서 맞대결을 벌이는 진귀한 장면이 연출됐다.

우크라이나의 나디아 키체노크(복식 랭킹 39위)와 루드밀라 키체노크(복식 44위)는 생일이 1992년 7월 20일로 같은 쌍둥이다.

그런데 이들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WTA 투어 시카고오픈(총상금 23만5238 달러) 복식 결승에서 맞대결했다.

일란성 쌍둥이인 키체노크 자매는 나디아가 랠루카 울라루(루마니아)와 한 조를 이뤘고, 루드밀라는 니노미야 마코토(일본)와 결승 무대에 올랐다.

경기는 치열한 접전 끝에 나디아-울라루 조가 2-1(7-6(8-6) 5-7 10-8)로 승리했다.

나디아는 경기 후 “정말 치열한 승부였다”며 “자매와 맞대결하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인데 랠루카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 쌍둥이 자매의 결승 맞대결은 경기 소요 시간만 2시간 15분으로 복식 경기치고는 오래 걸렸다.

특히 비 때문에 전날 2세트 경기 도중 중단돼 ‘1박 2일’ 매치로 진행됐다.

나디아는 WTA 투어 복식에서 7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세 번을 쌍둥이 자매인 루드밀라와 합작했다.

이 둘은 도쿄올림픽 여자 복식에는 한 조로 출전해 8강까지 올랐다. /연합뉴스



올해 도쿄올림픽에 한 조로 출전한 나디아(왼쪽), 루드밀라 자매.

##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인질
- 2관 인질
- 3관 싱크홀
- 4관 인질
- 5관 싱크홀, 올드, 다이노 마이 프렌드
- 6관 싱크홀
- 9관 모가디슈
- 7관 씨네커풀 모가디슈, 귀문
- 8관 씨네커풀 여름날 우리, 레미니센스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극단 기획공연 제1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낭독공연 **양림**  
 일시 : 2021. 08. 30.(월) 16: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I **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 2021. 09. 06.(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

